



미사를 봉헌하러 집으로 오세요!

COVIDsafe 제한 완화 이후 성찬례로 돌아가는 것에 관하여

COVID-19 팬데믹에 시드니 대교구장이 성직자와 신자들에게 보내는 여덟번째 서한

대림 제 3 주일, 2020 년 12 월 13 일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님들과 형제 자매님들께,

관면의 해제

정부는 경배 장소와 종교 활동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내 및 실외 미사에서 유일한 인원 제한은 현재 2 제곱미터의 규칙입니다. 물론, 우리는 적절한 위생과 사회적 거리를 두는 것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아직 우리가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숲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편지와 함께 저는 새로운 전례 지침을 공표합니다.

교회 참석 제한의 대폭 완화에 비추어, 저는 2020 년 3 월 20 일에 발표한 훈령을 철회합니다. 그 훈령은 신자들로 하여금 주일, 성탄과 성모승천 대축일의 거룩한 날에 참석해야 하는 의무를 관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회법 제 1247 조에 따라 이제 위 날들에 미사에 참석하는 것은 다시 의무가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이 순명보다 사랑으로 미사에 오기를 더 원합니다. 하지만, 사랑 자체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나이가 많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COVID-19 의 위험에 대해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집에 남아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전의 서한에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특정 미사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러한 시도를 한 것을 의무 이행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실한 신자들 대부분은 미사에 대한 많은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사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더 많은 수용능력, 추가 미사, 사전 등록 및 기타 조치들을 통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미사에 수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부님들은 성찬절에 신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성전 내부, 큰 강당, 야외 미사를 병행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힘들었던 거리두기 시간

거리를 두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이 그리스도를 가까이 따르는 것임을(마태 16,21-27) - 가족, 본당, 그리고 공동체 모두가 함께 모이고, 선포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공동 기도로 우리의 필요를 청원하고, 거룩한 영성체 안에서 그분의 실체를 받아들이고,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을 돕기 위해 파견되는 것 - 알기 때문입니다.

올해 대부분의 기간 동안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없었거나, 매우 축소된 방식으로만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 신부님들과 본당 교우 여러분들께서 상황에 맞게 놀라운 회복력과 창의력을 보여주었지만, 우리에게 정말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지역사회가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협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진중한 태도로 우리에게 부여된 제한사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히 하느님 혹은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결코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식해 왔습니다.

공동체와 친교

일부 사람들에게, 이 팬데믹으로 인한 '괴정'은 가족, 하느님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 종종 우리의 바쁜 일상으로 인해 밀려났던 대화와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라이브스트리밍으로 미사와 본당의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또한 평소 미사에 올 수 없었던 다른 사람들은 집으로 다가온 미사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미사 안에서 공동체와 함께한 경험을 그리워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동료 신자들과의 결합 말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매우 고립감을 느껴왔습니다. 여러분의 주교로서, 그리고 사제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그리워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미사에서의 공동체를 그리워한다면, 우리는 또한 당연히 미사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사적인 몸과 하나되는 성체성사. 즉, 영성체를 그리워 합니다. 영성체를 하지 못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제가 하느님을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성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워 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와 같은 방식으로 모이는 것을 그리워한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교회적 측면의 의식(意識)입니다. 구원은 나와 하느님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다른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오고, 하느님이 전달됩니다. 인간은 공동체와 친교를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표징과 성사

“물가로 오너라” 하고 하느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고(이사 55,1-3), 우리는 대림시기에 요한이 세례를 통해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식탁으로 오너라” 하고 예언자들과 시편저자가 소리치고(이사 25,6; 시편 23,5), 우리는 예수님의 파스카 성찬례에서 예수님을 통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요한은 빛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이 보여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도록 부르기위해 요한은 자신의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해야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우리에게 물로 세례를 주기 위해, 우리와 함께 있어야 했습니다(요한 1,6-8.19-28). 하느님과의 이러한 친밀한 만남이 영적이었던 것 만큼이나 육체적인 현존도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종교는 하느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종교,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종교, 성사적이고, 교회적이며, 친밀하고 개인적인 종교입니다. 우리가 육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육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배고프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음식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실체적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의 실체를 내어주셨습니다. 가상 현실이나 영적인 느낌, 혹은 유령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몸과 피를 지닌, 살(肉)안에 계신 하느님입니다.

이것이 성사적 의식(意識)입니다: 즉, 빵과 포도주, 기름과 물, 향과 제의(祭衣), 예절과 음악, 예술과 건축물과 같은 물질적인 현실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육적인 피조물은 하느님과 같은 영적인 실재와 결합됩니다. 성사는 물리적이거나 ‘도덕적(관습적)’ 존재를 요구합니다.

커다란 질문

우리의 ‘판데믹 피정’ 안에서 우리는 한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인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하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말론적’ 사건은 우리에게 필요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 보건 당국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충분히 집중해 왔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역시 경제를 살리는 데 신경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삶에는 건강과 풍요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과 풍요 둘 다 필요합니다. 가족과 친구, 교육과 운동, 예술과 여가, 정의와 봉사의 문제, 그리고 당연히 하느님을 경배하는 것과 같은 다른 것들도 필요합니다.

성체로부터 오랫동안 단식을 받은 덕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의 감각이 민감해졌습니다. 우리는 미사 안에서 하느님 또는 동료들과 맺는 개인적인 관계를 전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느님의 은혜가 집 밖에 있는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복음에서 사람들은 요르단 강 주변 광야에 계신 하느님을 만납니다(요한 1,6-8.19-28). 그들은 하느님의 예언자 요한의 말을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듣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그곳에서도 하느님과의 만남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필요로 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을 모아서 직접 세례를 주었습니다. 편지나 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경험은 우리에게 공동체와 성찬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만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만족스러운 빵과 값진 포도주에 대한 우리의 열망을 자극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질문인 삶의 의미에 대한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느님이시고 우리 내면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가서 제자로 삼아라!

COVID-19 판데믹과 공중 보건 명령은 종교계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교회는 잠시 문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는데, 평소 참석자의 1/3 에서 1/2 정도밖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미사에 참여했고 일부는 온라인으로 봉헌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이들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갔고 헌금은 갑자기 적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새로운 정상일 것입니다. 앞으로 추가 감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말고 판데믹의 종식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규제가 지속될 것이고, 위생 및 기타 안전 조치에 대한 의식이 강화될 것입니다. 고립되고,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어려움이 지속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도록 초대되었지만, 우리는 과연 사람들이 어떠한 교회로 초대되었는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기쁜 섭리로, 바로 이번 주말에 우리는 몇년간 준비해 온 대교구 선교 계획 '가서 제자로 삼아라'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된 상황을 볼 때, 그것은 우리의 COVID 회복 계획도 될 것입니다. 그 계획은 개인과 공동체의 쇄신에 대한 것입니다. 새로운 정상화에 발맞추어 우리가 선교하는 제자가 되고 환영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모든 세대에 요청되는 '새로운 복음화'는 그리스도교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새로운 점은 우리의 특별한 은사, 열정, 청중, 접근법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선교 계획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요청되는 복음화, 리더십, 공동체, 양성, 그리고 경배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십시오

19 세기 스코틀랜드의 시인이자 그리스도교 호교론자인 조지 맥도널드는 "가장 짧고 가장 달콤한 노래"라는 제목의 시를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길지만 시는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돌아오세요
집으로.

행이 나누어진 이 두 단어의 가슴아픈 감정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명령인가요? 간청인가요? 희망이라고요? 제가 볼 때 이 노래는 미사를 위해 집으로 돌아오라는 하느님의 소리가 담긴 노래인 것 같습니다.

교회로 돌아오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집이며 우리의 집인 곳, 바로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서 제자로 삼아라'로 연계 될 쇠신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공동체가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영적인 고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크리스마스 축하 계획에 미사를 포함시키십시오! 아직 단골 손님이 되지 못한 사람들을 성당에 데리고 올 계획을 하세요. 드디어 우리는 다시 캐롤을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가장 위대한 성탄 선물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아기가 되신 하느님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드니 대교구장

대주교, Anthony Fisher OP

A handwritten signature in green ink that reads "Anthony Fisher OP". The signature is written in a cursive, flowing style with a cross at the beginning.